

고전문학 리더십의 재발견과 그 인문학적 가치

강진옥*

<차례>

1. 입사식담 전통에서 본 정체성과 리더십
2. 문학의 관점에서 본 리더십
3. 고전문학 주인공의 리더십 발현양상
4. 젠더, 정체성, 리더십 : <바리공주> 읽기
 - 4.1. 바리공주의 행적과 정체성 확인과정
 - 4.2. 젠더적 관점에서 <바리공주> 읽기
5. 정체성, 셀프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리더십을 위해

<국문초록>

문학은 인간의 삶을 예술적 형상을 통해 그려냄으로서 공감을 자아내면서 세계의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 문학의 형상적 인식이 제공하는 공감적 울림은 독자의 내면세계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인식의 전환을 초래한다. 작품 주인공의 행적이 보여준바 정체성 확인과정은 리더십의 관점에서는 리더로서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웅의 일생구조를 공유하는 신화 또는 소설 주인공들이 보여주는바 자기를 정립함으로써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리더십을 목적적 가치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리더십 교육과 함양을 개인적 성공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리더십 개발론과는 차별화된다. 삶의 단면을 그려내는 서사문학은 리더십 교육의 텍스트이자 현장이다. 다양한 인물형이 등장하여 삶과 인간관계의 다면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고소설은 일대기(一代記)적 서사 모형을 갖는 주동인물의 자기정립과정을 통해 리더십의 형성 및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소설 주인공 세대의 리더십 형성과정은 우리에게 리더십 교육에서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선행되어야 할 가치가 ‘리더십 노하우를 어떻게 익힐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삶의 정황에서 자기 존재를 온전하게 실현하도록 하는 인간중심적인 목적적 가치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문학적 리더십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고전문학 리더십, 정체성, 셀프리더십, 리더십 교육, 인문학적 가치

1. 입사식당 전통에서 본 정체성과 리더십

인문학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던 중 하나의 방편으로서 해당주제에 대한 함의를 내포하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화 이야기로 말머리를 열어보자는 생각과 함께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 ‘본시리즈’가 떠올랐다.

<본 아이덴티티>로 시작하는 영화 ‘본’시리즈¹⁾에서 주인공 제이슨 본은 기억을 잃어버린 인물이다. 그는 남아있는 작은 단서를 근거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탐색에 나선다.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한 여러 개의 여권은 자아를 잃어버린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과 아울러 그의 탐색의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알 수 없는 적으로부터 가해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를 찾아 나선 그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 탐색의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정보국의 극비 프로젝트 요원이었으며, 정보국의 독점적 권력자가 고안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 하수인으

1) 본시리즈 3부작은 <본 아이덴티티 The Bourne Identity, 2002>, <본 슈프리머시 The Bourne Supremacy, 2004>, <본 얼티메이텀 The Bourne Ultimatum, 2007>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화의 원작은 로버트 러들럼(Robert Ludlum)의 동명의 3부작 소설이다.

로 훈련되었음을 알게 된다. 훈련을 통해 기억과 인간성이 철저하게 파괴된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요원으로서 프로그래밍되었던 것이다. 긴 탐색의 여정을 통해 그는 자기망각의 배후에 자리하는 권력과 그것을 사유화하려는 권력자의 탐욕에 다가서게 된다.

제이슨 본의 자아탐색의 과정은 그가 어떻게 자신을 상실하고 가공의 인물로 재구성되어왔던가 - 그 출발점을 향해 역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얼티메이텀>(3편)은 긴 탐색의 노정을 마무리하고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온 제이슨 본이 은폐된 진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악의 원흉을 단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조력자에게 제공하여 그들을 공적으로 심판받게 한다. 그는 고대 영웅의 행적을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재현하는 인물이다. 자기를 찾는 그 지난한 여정이 한편으로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에 기반한 권력의 부조리를 밝히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영웅의 행적을 보여준다. 그 영웅성은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결과 또한 그 자신이 표면에 나서서 수혜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는 그림자처럼 활동하지만 은폐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정의의 힘과 가치를 재확인하게 했다. 제임스 본의 행적은 그래서 자기 탐색의 여정이면서 현대사회의 문제적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서사이고, 끝내 문제의 근원을 발본색원하여 바로잡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보여준다. 그의 진정성은 주변 인물을 변화시켜 탐색의 조력자로서 진실을 드러내는 여정에 동참하게 만든다. 그가 보여주는 예사롭지 않은 행적들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렬한 충격과 함께 자신과 세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의 행적은 작중인물의 변화는 물론, 강렬한 울림과 함께 관객들의 인식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강렬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의 예사롭지 않은 능력이 요원으로 서 발휘되었을 때 그는 권력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휘되었을 때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웅이 되었다. 제임스 본의 영웅성은 바로 그 정체성 문제와 연결된다. 문제의 근원에 다가가면서 그는 요원시절의 행적들을 성찰하게 되고 진정어린 참회와 그 실천적 면모를 보이면서 본래적 자기를 회복해간다. 제임스 본의 탐색담은 정체성의 문제를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아울러 정체성과 리더십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인식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정체성이야말로 리더십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재인식하게 해준다.

다시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지옥의 묵시록 Apocalypse Now, 1979>²⁾은 월남전을 배경으로 미군 특수부대 소속 윌라드 대위의 입사식담으로 재구되었다. 이 영화에는 신화와 제의적 상징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윌라드의 여정은 <오디세이>를 연상시킬 만큼 험난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더구나 임무 수행을 위해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정은 그 자체로 신화적 상징을 함축한다. 배 안에 있는 그는 자궁 속의 태아와 같다. 물은 재생의 공간이다. 마치 양수를 유영하는 태아처럼, 배와 그 안에 속한 윌라드는 동일시될 수 있다. 항로는 강의 상류로 거슬러가는,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이다. 이는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역적이고 순환적인 신화적 시간을 향한 여정을 상징한다. 향해 내내 그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다. 극비문서를 통해 커츠에 관해 알게 되면서 매료되는 과정을 위시

2) <지옥의 묵시록 Apocalypse Now, 1979>(감독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의 원작소설은 <어둠의 심연 Heart of Darkness>(조지프 콘라드 Joseph Conrad)이다. 감독은 이 작품을 각색하여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반전영화로 재창조했다.

하여, 거처가는 지점마다 목도하게 되는 전쟁의 참혹성과 혼란상을 대변하는 다양한 사건들도 윌라드의 현실인식 심화에 일조한다. 그렇게 배 안의 윌라드는 태아처럼,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커츠의 왕국은 신화와 제의의 시공간으로 그려진다. 커츠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기괴함, 그를 왕으로 추앙하는 추종자들의 태도, 그리고 그의 방에 놓여있는 두 권의 책 - 프레이저(J.G.Frazer)의 『황금가지(The golden bough)』와 웨스턴(Jessie L. Weston)의 『제식에서부터 로맨스로(From ritual to romance)』-은 커츠의 왕국에서 수행되는 윌라드의 임무수행이 어떠한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윌라드는 커츠로부터 그가 직면했던 전쟁 속의 도덕적 딜레마와 그로 인한 궁극의 공포, 광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노쇠하고 지친, 군령 위반자이므로 죽어야만 귀가할 수 있는 그는 살해되어야 하는 왕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커츠의 죽음은 『황금가지』의 ‘살해되는 왕’을 재현하는 사건에 비견될 수 있다.

윌라드의 커츠 살해는 노쇠한 왕을 살해하고 집단의 힘을 보장하는 세대교체를 위한 희생제의에 해당된다. 입사식담 구조로 읽을 때 커츠 살해는 일차적으로 사령부에서 부과한 윌라드의 과제 수행에 해당되지만, 암시하는 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윌라드 입사식담의 정점이 노쇠한 왕의 살해이고, 살해자가 세대교체를 통해 집단적 힘을 보장할 존재라는 또 다른 제의적 문맥을 고려한다면 커츠 살해는 반전(反戰)에 대한 또다른 대안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커진다. 커츠가 보여준 저항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이면적 진실을 목도하고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 현실로 귀환하는 배에 승선한 윌라드는 자신의 새로운 현실에서 어떠한 대안을 보여줄 것인가? 아마도 귀환의 항로는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는, 윌라드가 자기자신을 정립하게 되는 또다른 입사식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확인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지배하는 혼돈상태로부터 깨어나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기정립의 과정이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확인이다. 나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부합되는 역할을 자각하고 방법을 찾아 진일보하는 리더로 거듭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입사식담은 사회적으로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획득이라는 의의가 있지만³⁾, 입사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자기를 재인식하는 정체성 확인과정으로서, 현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⁴⁾ 자신과 사회·현실과의 관계성을 온몸으로 자각하는 그 과정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의 형성과정이고, 사회적 자아의 정립과정이므로 집단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영웅의 행적을 보여주는 신화의 주인공처럼, 입사식담은 영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영웅의 일생구조⁵⁾는 인간의 삶의 모델이자 전범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⁶⁾ 그러므로 범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성원으

3) 입사식담은 통과의례의 하나인 입사의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서사이다. 통과의례는 개인이 새로운 지위·신분·상태를 통과할 때 행하는 의식이나 의례로서, 반젠넵이 『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1909)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일반화되었다. 반젠넵은 통과의례의 전 과정을 통해 개인은 의례적으로 죽고 출생하고 양육되고 단련되고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고 한다. 반젠넵, 『통과의례-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94. 참조.

4) 용 학파는 성인식의 과정을 “토템, 씨족, 부족 혹은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집단이 자아와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의 대단히 의미심장한 행위”로 파악한다. 칼 G 용 외 지음, 『인간과 상징』, 이윤기 역, 열린책들, 1996, 130쪽.

5) ‘영웅의 일생’은 서구의 영웅신화에 나타나는 모티프들에서 도출한 공통유형(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 연구』, 일조각, 1971)을 조동일이 한국의 신화에서부터 서사무가, 고소설에 이르는 서사문학의 유형구조로 체계화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연구 10, 1971;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참조.

로서의 자격 획득, 자아정립, 자기리더십 형성 등 유사한 의미구조를 지닌다. 사회적 성원으로서는 소임을 맡고, 결혼하여 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그 영향력의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각자의 역할에 따른 소임을 수행하므로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입사식담에서 상징적 죽음과 재생은 입사자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부합되는 사회적 자아로서의 자기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인간과 삶을 이야기하는 문학은 궁극적으로 정체성에 관한 질문과 그 나름의 해답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주체로서의 자기를 정립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 위상을 확인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입사식담은 그러한 인간 이해방식을 제의와 신화 구조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웅의 일생구조와 입사식담은 신화, 제의 텍스트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범례로서의 의의를 갖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 입사식담이 영웅의 일생구조와 함께 문화와 문학의 원형으로서 되풀이 나타나는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2. 문학의 관점에서 본 리더십

오늘날 도처에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지도

-
- 6) 조셉 캠벨은 신화와 삶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한다. 영웅신화에서 입사식담은 우리 삶의 단계에서 맞이하는 입문의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영웅의 여정은 인간의 일생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영웅의 모험은 살아있음의 모험으로 해석한 바 있다.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옮김, 민음사, 1999;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신화의 힘』, 이윤기 옮김, 21세기북스, 2002 참조.

력 또는 사명(Mission)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리더십은 이끌어가는 행위, 이끌어가는 능력, 리더의 직위라고 표현할 수 있다.⁷⁾ 리더십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시 되어온 가치였겠지만, 변혁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리더십 관련 문헌을 훑다보면, “리더십의 정의는 거의 그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다.”는 지적에 동의하게 된다. 과거 50년 동안 리더십의 차원들을 정의하기 위해 개발된 분류시스템의 수만 해도 65개에 이른다고 한다.⁸⁾

그런데 수많은 리더십 이론이 지향하는 방향은 실용적 관점의 성과중심적 가치라는 점이 주목된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현실세계를 지탱해온 상황들이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우리 앞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대상이 되었고,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리더십’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대안의 하나로 부상되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요청되고 훈련받은 리더십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절대명령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연 그러한 수단적 가치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바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비법이 될 수 있을까?⁹⁾ 왜 리더십을 문제삼아야 하고,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포용하려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의 관심사인 문학작품은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문학작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을 경험한다. 우리

7) 전숙자 외, 『내 안의 리더십』, 도서출판 그린, 2009, 8쪽.

8) 최무현, 『리더십 입문 : 이론과 실제』, 소통과 공감, 2013, 15쪽.

9) 윤해린, 『여성리더십의 공간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9, 7~8쪽.

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때론 특정한 일이나 상황보다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더 힘들 때가 있다. 이야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 자신의 진면목을 찾아가는 사연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은 처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지만 여러 사건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진실을 만나게 된다.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독자의 경우, 크든 작든 주인공의 행적을 따라가는 동안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동일시를 통한 공감, 인식의 공유 등). 주인공의 변화는 그의 행적에 공감하는 독자인 나의 변화를 야기한다. 설령 주인공이 문제의 해결에 이르지 못할지라도(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시도와 행위는 자신이 처한 상황(객관적으로, 적어도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자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무튼 문학은 인간을 문제 삼는 영역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영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이야기이고, 삶에서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기주도적 리더십은 소설을 비롯한 이야기 갈래에서 특히 부각되는 문제이다.

리더십 이해는 사회와 현실을 고려하는 시각을 필요로 하지만, 리더십과 정체성의 관계를 고려할 때 리더십의 단초는 그것을 발휘하는 주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문학작품은 사람살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와 그가 속해있는 사회와 현실을 함께 문제 삼는다. 문학작품 - 특히 서사문학은 (기본적으로) 인물이 사회와 현실의 문맥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확인해가는가를 다루고 있다. 자신의 현재적 상황을 드러낸다는 점은 서정문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정갈래는 시적 화자의 발화를 통해 주체의 현재적 감정, 정서,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므

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다루고자 할 때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은 등장인물의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이 리더된 자의 자질이 사회와 현실의 문맥에서 드러나고 평가되는 것이라면, 리더로서의 자질이 형성되는 과정은 인물의 존재론적 문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학작품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서사문학은 대부분 등장인물이 자신이 속한 세계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때론 자기 확인이 행복하게 실현되지 못한, 파국적 결말일지라도, 인물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자신의 현재적 지점을 객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은 작품내적 인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험을 통해 공감과 함께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전설갈래는 대체로 전설적 경이로 좌절하는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한 작중 현실은 등장인물에게 세계의 경이로 인식되는 반면, 청중들에게는 세계의 황포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문맥에서 재구성되거나 재인식되는 형태로 경험된다.

민담의 주인공은 어딘가로 길을 떠난다. 이동하는 것은 민담 주인공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민담 주인공에게 일상적 현실은 결핍으로 표상된다. 결핍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삶의 정체(停滯)를 의미한다. 결핍의 상태에 있는 인물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기회는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것에 있다. 민담에서 길을 떠나 새로운 상황과 대면하는 인물의 태도는 생동하게 그려진다.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는 생각하고, 과감하게 시도하고, 뜻밖의 기회를 붙잡는다. 그러한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인물은 자기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을 과감히 던짐으로서 그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다. 가진 것은 없지만 진정성 하나로, 전존재를 걸고 상황을 돌파하는 그 자세는 주인공에게는 행운을, 그 이야기를 음미하는 청중에게는 삶의 역동성과 아울러 삶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인식을 갖게 한다.

인간을 탐구하는 인문학의 한 분야인 문학은 인간의 삶을 예술적 형상을 통해 그려냄으로써 공감을 자아내면서 더불어 세계의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 문학의 형상적 인식이 제공하는 공감적 울림은 독자의 내면세계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인식의 전환을 초래한다. 한 권의 문학작품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례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바다. 등장인물의 행적, 세계와의 관계양상, 작가의 시선, 그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빚어진 그 무엇이 독자의 내면세계와 만남으로써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서 창조적이고 설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 작품 주인공의 행적이 보여준바 정체성 확인과정은, 리더십의 관점에서는 리더로서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웅의 일생구조를 공유하는 신화 또는 소설 주인공들이 보여주는바 자기를 정립함으로써 리더로서 성장하는 과정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담주인공의 발랄하고 생동하는 삶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리더십을 목적적 가치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리더십 교육과 함양을 개인적 성공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리더십 개발론과는 차별화된다 하겠다.¹⁰⁾

문학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논의할 경우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작품내적 세계와 작품외적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 작품내적 세계에는 등장인물-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고, 인물이 대면하는 세계와의

10)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라는 개념은 윤해린, 앞의 책, 16쪽 참조.

갈등양상이 부각된다. 등장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자신을 정립하고 리더로 성장해가며,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리더십은 주동인물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주변인물의 리더십도 당연히 논의대상이 된다.¹¹⁾

문학행위는 작가의 창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작가의 창작과 독자의 수용, 그것을 둘러싼 일련의 현상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작품 외적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독서체험도 관찰대상으로 주목할 수 있다. 이처럼 작중인물은 물론 수용자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문학을 통한 리더십 논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주를 형성할 뿐 아니라 다층적 접근과 분석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의 리더십 논의(대상)는 작가, 작품, 작중인물, 독자, 나아가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 파급된 현실세계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이 관여하는 관계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과거의 리더십 관념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관계에 대해 강력한 리더가 이끄는 대로 호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개인의 개성과 자유의

11) 리더십은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진다고 한다. ①리더십은 리더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단 상황에서 일어나는 관계(relationship)라고 할 수 있다. ②리더십은 과정(process)의 개념을 담고 있다. 리더십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성이 아니라 리더와 팔로워들 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주위 구성원들과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리더와 팔로워간의 동태적인 역학관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③이같은 리더십 과정은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 리더십은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④리더십은 리더와 팔로워의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이다.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최무현, 앞의 책, 19~20쪽) 본고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고전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리더십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가 중시되는 요즘 그러한 초강력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호응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 리더십은 리더만의 것이 아니다. 리더의 리더십 못지않게 구성원들의 팔로우십도 중요하다. 리더가 구성원들의 팔로우십을 리더십의 차원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처럼, 구성원들 개개인도 리더로서의 자기 변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어 스스로 통제하고 행동하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으로 구현된다.¹²⁾ 개인이 스스로를 이끄는, 자율적 리더십 또는 자기 리더십은 인문학이 지향하는바 성숙한 인간, 성숙한 시민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지구화(地球化), 가상현실, 인공지능,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등등 오늘날처럼 기존의 관념들이 해체되고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는 집단적 중심점을 이루는 강력한 리더십보다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기(주도적) 리더십은 자기정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을 바로 알고 주체로서 바로 세우는 일은 개인으로서의 자기 확인은 물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역할에 대한 인식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처하게 되고 그에 부합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12)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 자율적 리더십 또는 자기 리더십이라고도 하며, 개인이 스스로를 이끄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즉 리더의 입장에서 팔로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규제하며 행동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리드하는 능력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수퍼리더십이라면, 팔로워의 입장에서 타인이 리더가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어 스스로 통제하고 행동하는 것을 셀프리더십이라고 말한다. HRD용어사전, (사)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9. 6., (주)중앙경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8392&cid=51072&categoryId=51072>

수많은 역할과 상황에 따른 자기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정립하여 자기 주도적 리더십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리더는 리더 이전에 인간이므로 진정한 리더십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립이 선행되어야 갖출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기주도적 리더십은 모든 리더십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문학적 관점에서 리더십 논의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방법으로 ‘자기리더십’ 또는 ‘자기주도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주인공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확인해갔으며, 어떻게 주체로서 거듭나고, 리더로 성장하는가를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주도적 리더십을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문학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 둘째, 모든 리더십의 기본이 되는 자질이라는 점, 셋째,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특히 요청되는 자질이라는 점 때문이다.

3. 고전문학 주인공의 리더십 발현양상

대부분의 고전서사는 존재전환의 이야기이다.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 나지만, 그것이 발휘되려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영웅소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이다. 영웅소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의 주인공의 모습을 노출시킨다. 정적의 모해를 받은 부모세대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가족이 이산되고 가문이 해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난리통에 가족이 이산되어 홀로 버려지거나 유리결식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어느 경우이든, 인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낮은 연령대에서 이러한 상

황에 봉착한다. 미성년, 미성숙 상태의 인물은 원조자에게 구출되고, 그의 후견 아래 학문을 닦고 무술을 연마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현실문맥에서 실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주체로서 거듭나게 되며,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갖추게 된다.

한편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수용자는 자연스럽게 서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내재된 의미를 스스로 인지하고 인식해가게 된다. 내면화 과정은 즉각적인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별한 경우, 내재된 의미가 생의 특정 순간마다 반추되면서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그러한 경험은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삶을 변화시킨다. 고전서사문학의 경우 인물의 행적은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화된 서사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집단적 이념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리더로서 그의 리더십은 인물의 행적을 보여주는 서사구조에 함축되어 있다. 소설갈래의 서사적 문법에 노출되어 있는 수용자들은 유형구조를 근간으로 하여 전개되는 인물의 생에 대한 인식과 이념적 지향을 공감적으로 수용하고 동일시함으로써 그의 가치관을 내면화한다. 따라서 인물이 보여주는 집단적 이념과 그것에 기반한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수용자들의 리더십의 모델이 되면서 리더십 함양에 일조하게 된다. 여기서 작중 인물의 형상에 나타나는 리더십 구현양상 - 고전문학 주인공의 리더십 발현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영웅의 일생구조는 건국신화에서부터 서사무가, 고소설은 물론 신소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원형이다. 주몽신화는 고대국가 형성기의 사회상과 세계관념을 반영한다. 천부지모의 신성혼인, 출생대목의 햇빛감응·난생·천손강림 화소, 기아대목의 짐승들의 보호, 투쟁

대목의 어별교나 기후조절 등 주술적 능력 발휘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시련의 시간은 신화적 인물의 자기인식의 계기로 작용한다. 말뚝이꾼으로 일하는 동안 자부심에 상처를 입게 된 주몽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갖게 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를 격려하고 세계를 향한 꿈을 꾸도록 이끌어준 존재는 어머니이다. <동명왕편>에 의하면, 유화는 어린 아들에게 활을 만들어주어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했고, 태마법을 알려줘서 탈출을 준비하게 했으며, 경황없이 떠난 아들에게 보리씨앗을 보내 국가의 기틀이 될 농업을 일구게 한다. 졸본땅에 도착한 그는 정복전쟁으로 고구려를 건국한다.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주몽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유화의 입사식담도 주몽 못지않은 곡절을 보여준다. 혼사장에, 부모로부터의 축출, 금와왕의 별궁 유폐로 이어지는 혹독한 입사식과정은 그녀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리더로 거듭나게 했고, 아들을 국가창업의 리더로 이끈 모성리더십의 원천이 되었다. 유화의 모성리더십은 주몽이라는 위대한 리더를 탄생시킨 슈퍼리더십이다.

영웅소설 주인공은 집단의 이념적 가치를 대변하는 전형적 리더상을 구현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예사롭지 않은 시련을 강한 의지와 집중력으로 극복하고, 잠재되어 있던 천부적 능력을 현실문맥에서 발현해낸다. 이 대목은 고전서사에서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시련은 인물에게 자신의 현재적 위상을 돌아보게 하고 사회적 현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자신이 잃어버린 가치/회복해야 할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인식과 자각은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로지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면서 보낸 그 자기집중의 시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자기를 정립해가는 과정이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체계를 제시하고 현실문맥에서 실현해내는 영웅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요청되는 필수적인 단계인 것이다.

영웅의 수학 및 타마과정은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리더십 훈련의 과정에 해당된다. 자신을 지탱해주던 일체의 보호망들을 상실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미성년의 주인공에게는 (현실문맥에서는 미지의 인물인) 조력자가 있다. 그는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후견인이자 드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멘토이다. 여기서 조력자와 주인공은 리더와 팔로워 관계를 형성한다. 그는 주인공(팔로워)에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규제하며 행동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리드하는 능력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이른바 수퍼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그의 리더십 아래 주인공은 자신의 리더가 되어 삶을 주도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셀프리더십을 구현하고 스스로 목표한 지점에 도달한다. 그는 출장입상하여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영웅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덕치(德治)로 백성들을 이끌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명실상부한 리더로 성장한다. 여기서 셀프 리더십은 자기정립이라는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며, 모든 리더십의 토대가 되는 리더십의 기본기, 원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리더십 형성과정은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 인물일지라도 자기연마를 거쳐야만 리더로 성장한다는 점, 그리고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타고난 잠재력을 자기 스스로 현실화하도록 이끌어주는 통찰적 리더십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리더는 타고난 자질도 중요하지만 연마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이 강조되며, 리더십 형성과정에는 타고난 자질을 발현하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주인공이 수련공간을 떠나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스승의 뜻에 의한 것인데, 이는 그

가 팔로워에서 리더로 전환되었으며, 현실문맥에서 자신의 역할에 부합되는 리더십을 자재하게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고소설이 리더십 교육의 좋은 교재라는 사실은 가정소설류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처첩갈등이 부각되는 가정소설류에는 주인공 세대를 깨우치고 지도하는 집안의 어른이 등장한다. 그 역할 수행자는 대체로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자매이지만 어머니 또는 누나일 경우도 있다. 이들은 문제를 유발하는 주인공세대 인물들에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리더들이다. 이들 인물과 주인공 세대는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의 리더십이 부재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주인공 세대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예사롭지 않음을 말해준다. 작품의 전개과정은 주인공 세대가 어떻게 자기를 정립하며,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되는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¹³⁾

<사씨남정기>는 사씨의 수난을 다룬 소설이지만, 유연수의 거부장으로서의 자기정립과정을 보여주는 성장소설이기도 하다. 유연수의 수난은 그가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다. 그는 명석할 뿐 아니라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반듯한 선비였지만 교씨와의 관계를 통해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교씨가 자극하는 감각적 욕망에 휘둘려 객관적 인식능력을 상실한 그는 무의식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확인이나 정립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이다. 교씨의 아바타로 보였던 시간의 과보는 유연수의 수난으로 돌아온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은 유연수에게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자기성찰

13)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다양한 인물들과 연대하면서 상황을 타개해나가는데, 이러한 인물관계에도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의 계기를 제공하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게 한다. 다시 일상의 현실로 복귀한 유연수는 달라졌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가장으로서도, 치자로서도 소임을 다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인물로 거듭난 것이다.

삶의 단면을 그려내는 서사문학은 리더십 교육의 텍스트이자 현장이다. 다양한 인물형이 등장하여 삶과 인간관계의 다면적 양상을 보여준다. 고소설은 일대기적 모형을 지니는 주동인물의 자기정립과정을 통해 리더십의 형성 및 성장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설 주인공 세대의 리더십 형성과정은 우리에게 리더십 교육에서 선행되어야 할 가치가 ‘리더십 노하우를 어떻게 익힐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자기정체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수단적 가치가 아닌, 삶의 정황에서 자기 존재를 온전하게 실현하도록 하는, 인간중심적인 목적적 가치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문학적 리더십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이제 여성인물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춘향의 리더십은 춘향의 항거에서 읽을 수 있다. 춘향의 항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계를 향해 발해지는 설득과정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을 전달하고 주장하는 과정이다. 특히 변사또의 수청요구에 그 불가함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저항하는 ‘십장가’ 대목은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군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설득에 다름 아니다. 동헌 주변에서 매 맞는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평소 도도하고 만만하지 않은 춘향을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녀를 시기했던 기생들도 있었고, 당연히 그녀를 동경했던 한량들도 있었다. 평소 그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매를 맞는 춘향을 동정하고 변학도의 부당함을 이야기한다. 이 대목은 신분적 한계를 넘어 인간으로서

의 자결권을 주장하는 춘향의 입장에 민중들이 공감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춘향의 항거에 대한 민중적 지지는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 이몽룡과 농부의 대화에도 드러날 만큼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작중인물들의 공감과 지지는 당대 민중들의 인식의 변화를 시사한다. 춘향의 항거는 판소리 연행현장에 참여한 청중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그렇게 형성된 민중적 공감이 작품구조에 다시 반영되면서 춘향의 항거에 관한 해석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춘향가>가 국민문학의 위상을 갖게 될 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이유는 많겠지만, 그중에도 전존재를 걸고 신분제라는 사회적 장벽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자기선언을 했던 춘향의 항거와 설득이 보여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춘향가>가 성취한 작품적 성과는 춘향의 항거가 민중적 공감을 얻으면서 그녀를 지지하는 민중적 연대가 작품의 안과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대를 통한 공감의 리더십은 <덴동어미화전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덴동어미화전가>를 리더십의 관점에서 읽어보기로 하자. 부녀자들의 화전놀이판이 벌어지고 그곳에 참여한 덴동어미의 인생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픔에 잠긴 청춘과부를 주청자로 발화된다. 작품은 덴동어미의 긴 인생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는 청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장면은 이야기판의 현장성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정성 어린 인생 이야기는 덴동어미의 삶이고, 그녀 자신이다. 그 고통스런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그녀가 깨닫게 된 삶의 이치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과감없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덴동어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청춘과부는 달라진다.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라는 덴동어미의 생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화전놀이에 참여한 모든 부녀자들에게도 공감된다. 그리하여 봄노래와 함께 한바탕의

놀이판이 벌어지고, 다시 꽃노래로 넘어가면서 놀이판에 참여한 여성 하나하나가 봄날의 꽃으로 피어나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환호한다.

덴동어미를 매번의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준 것은 타인들의 위로와 격려이다. 그들이 전해주는 소박한 삶의 철학을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그녀는 그 힘든 고비들을 견디고 이겨왔다. 그러한 삶을 건너오면서 그녀가 도달한 달관의 경지는 자기 정체성 확인을 통한 셀프리더십을 넘어, 타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창조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덴동어미화전가>는 일상생활에서 리더십이 형성되고 실현되는 양상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 그녀가 셀프리더십을 형성한 과정이다. 덴동어미를 절망에서 일어서게 해준 타인의 위로와 격려들은 그녀로 하여금 살아야 할 이유와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자신을 정립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이 보여주는 연대는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로 파악된다. 그녀를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고, 삶으로 이끌어준 이들 여성들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보통의 여성들이다. 그들이 전해주는 따뜻하고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는 감성 리더십, 특히 여성적 연대라는 공감리더십을 보여준다. 그러한 연대에 힘입어 덴동어미는 자기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삶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인생과 세상이치를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달관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이 특별한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리더십은 일상의 관계에서 나누어지는 크고 작은 것들- 배려, 공감, 경청, 돌봄, 나눔... 등에서 발휘된다. 그것이 누군가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 삶의 방향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을 행한 당신은 리더이고 당신의 행위는 리더십이다.

덴동어미는 공감의 가치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다. 공감을 통해 일

어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녀에게, 더욱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 보는 달관의 경지에 이르게 된 그녀에게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질일 것이다. 이제 덴동어미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여성연대를 확장한다. 덴동어미의 리더십은 비탄에 잠긴 청춘과부를 변화시킨다. 이제 청춘과부는 물론 다른 여성참여자들까지 봄날의 꽃놀이에서 일상의 굴레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놀이판에 흠뻑 빠져 탈일상적 자유를 구가한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울한 청춘과부는 생의 주체로서 자기자신을 확인한, 셀프리더십의 주인 공이다. 인식의 전환은 그녀를 팔로워에서 리더로 전환시킨다.

춘향과 덴동어미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연대, 설득, 공감이라는 리더십은 남성영웅들의 행적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요소들이다. 여성리더십에서 감성적 리더십이 특히 부각되는 이유는 전통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한 사회적 성역할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던 전통사회 여성들은 제약과 의무만 많았던 고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발달될 수 있었다. 누군가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었던 경험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또다른 공감으로 확산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여성들의 연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인물의 리더십을 다룰 때에는 젠더라는 관점이 또다른 요소로서 관여될 필요가 있다.

4. 젠더, 정체성, 리더십 : 〈바리공주〉 읽기

1) 바리공주의 행적과 정체성 확인과정

타고난 비범성으로 바리공주는 팔구 세에 이미 배우지도 않은 글에 능

통하게 되자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탐색한다. 바리공주는 양육자인 비리공덕 부부의 답변에 질문과 반박을 계속하다가 전라도 왕대나무와 뒷동산 모구나무가 부모라는 대목에서 질문을 멈춘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가 수긍할만했기 때문이다. 이후 바리공주는 모구나무를 찾아 삼시문안을 극진히 한다. 이처럼 세상을 향해 발해진 바리공주의 첫 번째 화두가 부모탐색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한데, 자기근본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정체성 확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해나갔던 바리공주가 정체성 문제와 본격적으로 대면하는 계기는 부모 상봉 대목이다. 타고난 명민함으로 바리공주는 아버지의 궁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국왕의 일곱 번째 딸로서 구약여행을 자청한다. 부왕에 의해 시도된 바리공주의 생물학적·사회적 죽음은 석가세존에 의해 구출·양육됨으로써 저지·유예되었다가 부모상봉을 통해 바리공주의 사회적 재탄생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바리공주는 혼란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재정립이라는 당위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을 위한 새로운 탐색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바리공주의 행적 전반으로 볼 때, 구약여행은 자기 확인을 위한 당위론적 염원을 반영한다. 구약여행은 그러므로 (사회적·윤리적 가치관념으로 볼 때) 부왕의 약을 구하러 떠난 효행의 과정이자, (존재론적으로 보면) 자기존재를 향한 탐색의 여정이다. 일곱 아들을 낳아달라는 무장승의 요구에 바리공주는 “그도 부모 봉양 할 수 있다면은 그리하성이다”라고 답한다. 일견 맹목적 이념지향처럼 보이지만 바리공주의 대답에는 부모봉양, 즉 부모와의 관계 확인을 토대로 하여 정체성 확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효를 이름으로써 바리공주는 진정한 자기자신으로 거듭났고, 정체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무장승이 요구한 약값은 석삼년 아홉 해 동안 나무하기, 물 걷기, 불 때기이다. 석삼년 노역’은 도를 배우러 산중 도인을 찾아간 젊은 수행자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자기를 내려놓고 일상의 노동을 묵묵히 실행하는 그 과정은 수행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일곱아들 출산까지 바리공주는 부모봉양이라는 명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부모봉양은 처음 효 이데올로기라도 읽을 수 있었지만, 아홉 해 동안 반복되는 노동이라든가 일곱 아들 출산이라는 과제에 이르면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함축한다. 출산은 여성성을 발현하는 사건이다. 일곱이나 되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 여성성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소아적(小我的) 아집을 벗어나게 된 바리는 자기 안에 자리한 생명력과 생명에의 사랑을 자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바리공주에게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을 것이지만, 일곱이나 되는 생명을 낳고 기르면서 자각하게 된 산육 주체로서의 자기인식은 그녀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서천세계에서 일곱 아들을 낳고 생명수와 꽃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귀환대목은 바리공주의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기존재의 심연에서부터 생명수를 길어내어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생명 배양자로서의 면모는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생명의 근원에 도달한 바리공주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약물과 꽃으로 아버지를 되살린 바리공주는 유한한 인간존재에서 신격으로 좌정한다. 신성으로의 존재전환을 이룬 바리공주는 이계여행을 통해 획득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망자의 저승여행을 돕는 여신이 된다. 굿의 현장에서 바리공주는 망자를 인도하여 조상신으로의 전환을 도와줌으로써 망자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생자에게도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계속 되어야 함을 일깨워준다. 그 결과 망자와 생자는 조상신과 자손으로서 관계양상을 재정립하게 된다. 정체확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리가 경험

한 그 슬한 고난과 시련은 자기 정립을 이루지 못한 존재의 불안정한 존재양태를 대변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불안정한 경계적 양태를 넘어 탈경계의 존재로 거듭나는 바리공주의 행적은 가치있는 삶,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망자를 인도하여 조상신으로 전환하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했던 비밀은 정체성 확인에 있었다. 자기자신을 정립하고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리하여 삶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 바리공주가 헤쳐나간 시련의 과정들은 삶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바리공주가 온몸으로 헤쳐나간 삶의 행로는 향상된 존재로 성장해가는 삶의 도정을 보여준다. 그 결과 바리공주는 자기존재의 근원에 도달하고, 생명의 기운을 길어올려 스스로 생명수가 되고 생명을 되살리는 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었다.

2) 젠더적 관점에서 〈바리공주〉 읽기

바리공주의 정체성과 리더십은 젠더적 관점에서 볼 때 보다 구체화된다.

① 젠더화된 공간에서 탈젠더화 공간으로의 전이(출생, 기아)

바리공주의 생물학적 출생지인 오구대왕의 나라는 젠더화된 사회, 젠더화된 가치규범이 공고한 사회이다.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난 바리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분노를 야기하고 그 존재를 부정 당한다. 자식의 가치를 왕위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딸, 더구나 일곱째 딸은 무용하고 무가치한 존재이다. 갓 태어난 어린 딸을 사해용왕에게 진상하라고 하는 오구대왕의 명령은 사회적 죽음의 선고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 바리공주는 옥함에 넣어져서 사해바다를 떠돌다가 석가세존에게 구출된다.

② 탈젠더 공간에서의 성장(양육, 학습, 비범성 발휘)

바리공주는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성장한다. 바리공주의 성장과정은 그의 예사롭지 않은 자질을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기존의 질서나 가치관이 넘이 부재하는 그녀의 성장공간은 남존여비와 남아선호 등으로 철저하게 젠더화된 아버지왕국의 질서와는 무관한 곳이다. 나아가 양육자의 성격도 그러한 속성을 보장한다. 바리공주를 양육하게 된 비리공덕 부부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 공덕을 빌어야 하는, 비기득권층이자 주변인이다. 이러한 자질은 그들 부부가 고정관념과 상대적으로 무관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바리공주의 성장공간은 남/녀의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작용하지 않는 곳으로서 바리공주의 잠재력을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준비하는 공간이다.

바리공주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비범한 학습능력과 부모에 대한 탐색이다. 그녀는 세 살 또는 팔구세가 되자 탁월한 학습능력을 발휘하는데, 해당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는 ‘상통천문 하달지리 무불능통’이다. ‘배우지 않은 글’을 저절로 통하거나, ‘한 자를 가르치면 열 자 스무 자 천 자 만 자를 터득해서’(강옥임구연본)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다. 바리공주가 능통했다는 학습내용은 고전시대에 중시되었던 인문학적 성과들의 총체로서, 그것의 수학기회는 (역사적 현실적 문맥에서는) 특정 계층의 남성들에게만 제공되었던 특권이다. 이러한 성취는 젠더화된 아버지의 왕국에서 성장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탈젠더 공간에서 무성화(無性化)된 바리공주는 아버지 나라의 젠더규범을 벗어나 인류가 축적한 인문학적 성과들을 수학하고 통달하는 인물로 성장한다. 나아가 고급의 지식체계를 통달한 이후 그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인물로 변모한다.

③ 젠더화된 공간으로의 진입(부모상봉)

부왕의 득병은 바리공주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청의동자에 의해 바리공주의 존재가 드러나고, 바리공주의 사치를 찾으라는 계시가 실행된다. 바리공주는 아버지의 궁전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언니들이 차례로 거부한 부모의 구약 요청을 수락한다. 이 대목에서 바리공주와 언니들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드러난다. 바리공주의 비범성은 타고난 것이지만 그것의 발현은 성장 및 수학 과정이 탈일상적, 탈젠더화된 공간이었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는 바리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던 것이 그녀의 예사롭지 않은 행적을 드러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임이 암시되는 부분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왕궁에서 성장한 언니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것으로 입증된다. 바리와 달리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최상의 배려와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언니들은 아버지 약을 구해오겠느냐는 요청에 대해 나약하기 그지없는 반응을 보여준다.¹⁴⁾

④ 젠더화된 공간으로부터 탈젠더 공간으로의 전이과정(구약노정)

남복을 입고 길을 떠나는 바리공주, 여기서 남복의 의미에 주목을 요한다. 바리공주의 성장공간에서는 복장에 대한 언급이나 학습에 대한 어떠한 성차별적 요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탁월한 학습능력은 찬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왕궁에 들어와 구약의 여정에 나서면서 바리공주는 남복을 착용한다. 남복은 그녀의 젠더적 위상(여성)과 그녀의 행적이 보여주는 젠더적 역할(남성, 구약여행) 사이에 놓인, 그녀의 탈경계적 존재태를 표상한다.

14) 서울지역 <바리공주>는 출생담 부분에서 태몽을 자세하게 서술하는데, 바리공주와 여섯 언니들의 태몽은 크게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바리공주와 언니들의 대응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젠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있어 일정한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차이점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⑤ 젠더를 넘어서다(과지옥, 서천, 신성전환)

길을 찾던 바리는 석가세존을 친견하게 되고 라화를 받는다. 가는 길에 지옥에 들린 바리는 지옥죄인들의 고통을 보고 라화를 흔들어 그들을 해탈시킨다. 과지옥(破地獄)은 바리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이다. 서천세계에 도달한 바리는 무장승이 요구하는 석삼년 노역을 수행하고, 다시 일곱 아들을 낳는다. 이 과정은 태어나자마자 부정되고 왜곡된 바리의 여성성이 극대화되는 과정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여성성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젠더적 관점에서 왜곡된 성 인식을 탈젠더화하는,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일체의 고정관념이 해체된 그 생명의 자리에서 그녀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생명의 주재자로 전환한다. 무장승이 말한 바, 그녀가 ‘날마다 하던 나무는 맥살이꽃이고, 날마다 긴던 물이 양요수’라는 말은 일상과 진리가 둘이 아닌 경지를 말해주고 있다. 긴 인욕과 하심(下心)의 과정을 통해 자기존재의 근원에 도달한 바리공주는 신성으로 전환한 것이다.

귀환한 바리공주는 아버지를 소생시키고 망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 된다.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출하고 죽은 아버지를 소생시켜 생명을 준 것처럼, 망자들을 조상신으로 전환하게 해주는 바리공주의 리더십은 모든 존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생명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것의 기반은 인욕과 하심으로 표상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다.

이상 젠더적 관점에서 바리의 존재태를 살펴본 결과, 바리공주의 예스럽지 않은 행적들- 기아, 성장 공간, 이계여행 등-이 보여주는 탈젠더적 공간과의 친연성은 이 서사의 지향점이 일상의 질서를 ‘탈일상의 질서화’하는, 죽음의 문제를 삶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조화하는, 죽음을 삶의 맥락 속에서 재의미화 하는 데 두어져 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젠더화한 사회

구조에 대한 역설적 비판을 보여준다. 그 사회로부터 축출, 배제, 거부당함으로써 탈젠더적·경제적 존재로 전환된 바리공주의 행적은 기존사회의 질서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왕인 아버지의 중병은 왕국의 노쇠함, 무기력, 낡음을 상징하며 그것은 인습화된 젠더적 고정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탈젠더화된 공간에서 성장한 바리공주는 노쇠한 왕국에 새로운 생명을 제공하는 변혁의 가능성으로 부각된다. 그런 관점에서 바리공주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으로도 읽힐 수 있다.

5. 정체성, 셀프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리더십을 위해

정체성 확인의 최고지점은 어디일까?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순간순간 새로운 역할에 놓이게 되고, 그때마다 그것에 부합되는 적절한 태도와 행동양식이 요청된다. 임제스님이 설파하신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임제록』)은 그러한 지점을 대변한다. 가는 곳마다 그 어디에서든 주체로서 존재한다면, 머무는 곳마다 진리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경지. 바리공주는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탐색의 노정을 차례로 거치면서 존재론적 전환에 이르는 과정에서 딸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식의 지평을 열어갔다. ‘과지옥’을 통해 지옥죄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지옥고로부터 해탈시킴으로써 이타적 생명사랑을 실천했으며, 석삼년 노역과 일곱이들 출산이라는 인육과 하심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제공하는 신성으로 거듭났다. 아버지를 소생시킨 것처럼 망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하여 조상신으로 전환케 함으로써 불멸의 존재성을 부여하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생명을 향한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위대한 생명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로 우뚝 섰다.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수많은 위치에 서게 되고, 그때마다 그에 부합되는 행동을 요구받는다. 그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일인가. 그러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 출발은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려는 자기주도적 리더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수많은 문학의 주인공들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매순간 변화한다. 그것은 부단한 자기 성찰과 자기 변혁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영상자료

- <지옥의 묵시록 Apocalypse Now>(Francis Ford Coppola, 1979); <지옥의 묵시록 리덕스 Apocalypse Now REDUX>(Francis Ford Coppola, 2001)
 <본 아이덴티티 The Bourne Identity>(Doug Liman, 2002); <본 슈프리머시 The Bourne Supremacy>(Paul Greengrass, 2004); <본 얼티메이텀 The Bourne Ultimatum>(Paul Greengrass, 2007)

2. 논저

-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5~49쪽.
 강진옥, 「바리공주의 서술구조와 망자축원의 존재양상: 배경재본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6집, 2008, 331~369쪽.
 강진옥, 「바리공주와 지장보살의 제의적 기능과 인물형상 비교: 서울지역 진오기·세남굿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5, 2012, 193~225쪽
 김영숙, 「여성중심 시각에서 본 바리공주」, 『국어문학』 31, 1996, 73~91쪽.
 김헌선, 『서울 진오기굿 :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2011, 1~476쪽.
 노성숙, 「신화를 통해 본 여성 주체의 형성 : 바리공주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2호, 2005, 5~37쪽.
 박혜숙 편역, 『텐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1~175쪽.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엮음, 『왜 아직도 젠더인가? : 현대사회와 젠더』,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1, 1~359쪽.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1~579쪽.
 신동훈,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 옛이야기 속 집 떠난 소년들이 말하는 나 자신으로 살기』, 쌤터사, 2014, 1~214쪽.
 종광 강설, 『임제록』, 모과나무, 2014, 1~456쪽.
 윤혜린, 『여성리더십의 공간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9, 1~254쪽.
 전숙자 외, 『내 안의 리더십』, 도서출판 그린, 2009, 1~244쪽.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463쪽.
 조혜란, 『고전서사와 젠더』, 보고서, 2011, 1~414쪽.

최무현, 『리더십 입문 : 이론과 실제』, 소통과 공감, 2013, 1~203쪽.

반 켄넬, 『통과의례-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94, 1~270쪽.

칼 G 융 외 지음, 『인간과 상징』, 이윤기 역, 열린책들, 1996, 1~319쪽.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 연구』, 일조각, 1971, 1~321쪽.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옮김, 민음사, 1999, 1~488쪽.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신화의 힘』, 이윤기 옮김, 21세기북스, 2002, 1~415쪽.

ABSTRACT

Rediscovering leadership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Its Humanistic Value

Kang, Jin-ok

Literary works usually deal with how characters find and understand themselves in society and reality. When we discuss leadership in literature, characters' perception of selves should be considered before anything else because the process of leadership building is carried out in the character's existence in reality in which leadership qualities are realized and evaluated.

Literature is a field of humanities which explore humans. Literature tries to discover truth by describing human lives in artistic form thus inducing empathy. The empathy that literature fosters help readers change their perception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dentity of a protagonist shows a growing process as a leader. Many myths and novels tell about the lives of heroes who realize their potential as a leader. This perspective that emphasizes leadership as an end value differ from the leadership discourse that views leadership education as a mean to acquire individual success.

The narrative literature which depict the cross sections of human lives could be used as a text for leadership education. It shows various types of characters and their lives. Korean Classical Novels typically show the growth of characters and leadership of protagonists throug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ir self identities. They also tell us the main goal of leadership education lies not in how to acquire the leadership skills but in how to grow as a human being with self identity. At the same time, it implies direction of humanistic leadership education. We should pursue from humanistic perspective self realization as an end value of leadership education.

Key Words leadership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dentity, self leadership,
leadership education, humanistic value

논문투고일 : 2016.10.15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